

제5회 신행수기 당선작(천태종 총무원장상)

부처님 감로법 이제 알았네 상

정 호 귀 <경북 청송군 청송교도소>

불 법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하지만 이제 지난 과거 나 자신의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면서 차츰 삶의 먹구름들을 조금씩 조금씩 걷어내고 내 삶의 길고도 두터운 업장을 조금씩 소멸해 가고자 한다. 누구나 영어(靈鵞)의 삶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화제였지만 내가 겪어야 했던 고뇌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다.

나의 이야기가 나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보다 더 어려운 내 이웃들과 동료 도반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끄럽고 떠올리기조차도 싫은 지난날의 참담한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니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러나 부처님의 감로법을 만났다는 보은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나의 지난 과거 삶의 흔적들과 내가 조금씩 변해 가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 국민 모두가 공립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태어나 겪은 일들이기에 나와 내 가족들만이 유독 어려움 속에 살아왔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내 인생에 대한 무엇인가가 정립되기 전에 너무 일찍 내 인생이 무너진 탓에 잠시 그 시절을 되돌아보고 싶을 뿐이다.

내가 태어난 곳은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조그마한 농촌이다. 4남3녀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내가 어릴 적에 사할이라고 하는 곳은 심어 리밖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집 부근에 있는 교회당에 다니게 되었고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연히 부대 안에 있는 교회당에 다녔다. 어느 날 부대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위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나는 토사에 밀려 20m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고 내 바로 옆에서 작업하고 있던 선임회사 한 분과 사병 2명 그리고 정비까지 토사에 묻히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나는 허리를 크게 다쳐 팔개로 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6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와 비슷한 사고가 두 번이나 있어 나는 아버님과 상의 끝에 7년 8개월이란 군복무 생활을 그만두고 재대하게 되었다.

제대 후 대림산업에 취업하게 되었고 군 시절 알고 지내던 박경미란 여인과 결혼하여 예쁜 딸까지 얻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사우디 아라비아에 나가 4년째 열심히 일하고 있던 어느 날 본사로부터 가정문제 때문에 빨리 귀국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순간 현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이때부터 나는 차라리 죽어 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경이 되었다. 이제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 하나 잘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살다보니 내 앞에 태산이 턱 버티고 있고 뒤에는 절벽이었던 때가 참 많았다. 사람들의 마음이야 모두 광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귀국 후 아내와 딸 소식을 알기 위해 고향집으로 갔다. 어머니께서는 찾병이 나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누워 계시면서 나의 두손을 꼭 잡고 "애야, 이

서 나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으로 치달고 있었다. 술을 마시다가도 끓어오르는 분노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집 집기를 때려부수기 일쑤였다. 이로 인해 여러번 파출소에 끌려갔다. 그러면 나의 셋째 매형께서 간신히 문제를 처리해주어 나오곤 했다.

이렇게 폐인처럼 세월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감동에서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를 찾았을 때 나는 이상을 얻었다. 칼을 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어 오른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지도 몰랐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상해 14주라는 상처를 입었다. 가끔 당시 내가 불교를 믿고 있었다면 이러한 엄청난 사고를 겪을까 생각해보는. 아마 모르긴 해도 모든 것을 헌신쯤 더 생각해 보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모든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 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이때부터 나의 도피생활은 계속되었다. 때로는 버스 정류장에서 때로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면서 허송세월을



그림 · 이준석

“누구를 원망하거나 질투하면 또다른 원망과 질투를 낳지요” 나는 이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은 이 예이 탓이다. 날 용서해다오. 돈은 앓다가도 없는 것이다. 다시 벌면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하면서 우셨다. 집을 나서서 나의 마음에는 아내가 나를 때렸다는 배신감 때문에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나의 마음이 나를 내락으로 물고 가는 먹구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때부터 나는 매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에 취해 이 괴로움을 잊으려 했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다. 한잔 술이 두잔이 되고 한병이 두병이 되면

경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하여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움을 거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 권구실로 독방으로 끌려 다니며 말 그대로 막가는 인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삶과 죽음의 길들 속에서 헤매이던 나에게 동료 한병이 현대불교신문을 한번 보라면서 주었다. 못 이기는 척 받아보고 보게 되었는데 ‘길을 묻는 이에게’라는란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

“모든 일은 너로 인한 업의 결과요. 내 행위로 인한 것이니 누구를 탓하여

원망하지 말라”는 내용이였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때부터 나는 불교에 관심을 갖고 불교법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어느 날 법회때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기 아직도 과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굴 원망한다거나 질투하는 또 다른 원망과 질투를 만들어 낸다는 인과의 도리를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계속)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의소식!!

왕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경등록

왕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모델 A: ₩3,800,000
B: ₩4,300,000

봉송 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예금주: 봉송황토마을)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이없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지진 수양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꼭꼭게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산삼의 효능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고조(고혈압, 저혈압), 이진증,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암사선,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위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임질(경화)치료, 장외결핵,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무안면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보이지 않거나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씩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맑아지며 지능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성된다.
- 산삼은 특별 병에 대한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능보약적 효능이 있다.

尊嚴하옵는 스님 오셨도 衆生 救護와 佛功으로 修行 하시는 스님

저차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용기를 斷斷드려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무당으로 미처 접할 기회가 못 가지셨던 스님께 願望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對面 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산삼(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외산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회의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존재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공중파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

☎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AX : (02)705-5229